

장흥 풍력발전소 소송 중 공사 강행... 주민들 반발

행정심판·행정소송 등 4년째 갈등 속 시행사 진입·운용도로 개설 공사 진행
반대대책위 "흙탕물에 장흥댐 오염되고 산 정상 파헤쳐 장마철 산사태 우려"

장흥 풍력발전소 조성을 놓고 개발행위 심의→ 행정 심판→행정 소송으로 4년째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사업자인 (주)한국서부발전이 소송 중에 공사를 강행해 주민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11일 장흥풍력발전건설반대대책위원회에 따르면 김선홍씨 등 71명은 지난 3월 30일 광주지방법원에 '장흥풍력발전건설 개발행위허가 처분 취소 및 집행정지' 소송을 냈다.

이들은 "풍력발전소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전자파 피해, 경관 훼손 등 환경 악영향이 우려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광주지법 제11행정부부는 지난 달 27일 집행정지와 관련한 심리를 진행했다.

그러나 사업자인 (주)한국서부발전이 사건 심리 중에 공사를 강행해 지역주민들의 강한 반발을 사

고 있다.

대책위에 따르면 서부발전 측은 총 4km(노폭 6m)에 이르는 풍력발전소 진입도로 및 운용도로 개설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로 인해 흙탕물이 여과없이 63만명 식수댐인 장흥댐 상류로 흘러내려 오염되고 있다고 대책위는 주장했다. 또 경사도가 극심한 유치면 용문리 병무산 정상 부근을 무분별하게 파헤쳐 장마철에 산사태 등 사고 위험이 높다고 지적했다.

대책위는 특히 서부발전 측이 통상적인 소송 절차를 무시하고 공사를 강행한 데는 법원 판결을 유리하게 이끌기 위한 것으로 보고 강하게 비난했다.

서부발전은 전남도의 행정심판 인용에 따라 장흥군이 지난 2월 5일 개발행위를 허가하자 4일 만인 같은 달 9일 공사를 시작했다.



한국서부발전이 장흥 풍력발전소 진입도로를 개설하는 과정에서 병무산 정상부를 무분별하게 파헤쳐 장마철 산사태가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장흥풍력발전건설반대 대책위 제공)

시행사인 ㈜두산건설과 동남건설은 지난 2018년 8월 ㈜서부발전과의 진입도로 및 운용도로 토목 공사를 2021년 3월까지 완공한다는 계약에 따라

현재 27% 공정이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시행사 측은 "공사기간 때문에 진입도로와 운용도로 개설 공사를 시작했다"면서 "식수전용댐인 장흥댐 상수원 보호를 위해 흙탕물 여과를 위한 '침사지' 설치의 물론 산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장흥 풍력발전소는 한국서부발전이 장흥군 유치면 용문리 산 4번지 8만2229㎡ 일원에 총 490

억원을 투자해 16MW(2.3MW 7기) 규모의 풍력발전단지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장흥=김용기 기자·중부취재본부장 kykim@

강진군 도입 딸기 모주 냉동기술 병해충 감염률 감소·노동력 절감

강진군이 시범 도입한 딸기 모주 냉동월동 기술이 병해충 감염률을 낮추고 노동력을 절감하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강진군농업기술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가을에 냉동저장한 딸기 어미묘를 봄에 꺼내 정식한 후 육묘를 시작한 결과, 기존 월동방보다 간편하고 병충해 발생이 적었다.

이전에는 가을철 어미묘를 확보한 다음 풋트에 담아 비닐하우스에서 보관하며 물을 주고 관리한 후 새싹이 나오는 2-3월에 육묘상에 옮겨 심는다.

이 과정에서 물관리를 잘못하거나 병해충 방제를 소홀히 하면 뿌리에 병이 오거나 선충의 피해를 입는다. 또한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는 겨울 시기에는 뿌리나 생장점에 동해를 받아 다음 육묘까지 피해가 나타났다.

다년간 딸기 육묘에서 병충해를 줄이고자 연구 중이던 원예연구팀은 지난해부터 이런 과정을 획기적으로 개선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모주 냉동월동 기술을 선보였다. 이 방법은 가을에 확보한 어미묘를 영하 2도의 냉동실에 보관하면 5개월까지 무리없이 유지할 수 있고 잎이나 뿌리에 붙어있던 해충도 박멸할 수 있는 점이 착안됐다. 또 겨울철 물관리와 병해충 방제를 별도로 하지 않아도 돼 노동력 절감효과는 덤으로 누릴 수 있었다.

시범 재배에 참여한 김성용씨는 "농업기술센터의 지도에 따라 모주 냉동월동 방법을 활용해 분별과 간편하게 육묘할 수 있다는 장점과 병충해 없이 깨끗하게 육묘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 딸기 모종 농사가 손쉬워졌다"고 말했다.

최영준 군 농업기술센터 원예연구팀장은 "딸기 모종 만들기는 여름철 흑서기에 이루어지는데 많은 노력을 들이고도 실패하는 경우가 많다"며 "보다 많은 농민들이 쉬운 육묘법을 배워 활용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영준 군 농업기술센터 원예연구팀장은 "딸기 모종 만들기는 여름철 흑서기에 이루어지는데 많은 노력을 들이고도 실패하는 경우가 많다"며 "보다 많은 농민들이 쉬운 육묘법을 배워 활용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강진=남철희 기자 chou@kwangju.co.kr

화순군, 건강 식재료 '여주' 활용 치유음식 14가지 개발 시식회



화순군이 여주를 활용한 향토 치유음식 개발에 나섰다.

11일 화순군에 따르면 군은 지난 8일 농업기술센터에서 구충곤 화순군수, 김순팔 군의회 의장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여주를 활용한 치유음식 시식회를 열었다. <사진>

이날 시식회에 화순 향토음식전문가 12명이 개발한 여주오리전골, 여주잡, 여주오리탕수육, 여주인절미 등 14가지 여주 요리를 선보여 많은 호응을 얻었다.

여주는 도깨비방망이처럼 울퉁불퉁한 모양으로 '쓴 오이'라고 불릴 정도로 쓴맛 때문에 식재료로 활용하는 것을 꺼렸지만, 최근 당도 등 성인병 발병률이 높아지면서 건강 식재료로 주목받고 있다.

화순군은 여주의 쓴맛을 최대한 없애는 데 주안점을 두고 집에서도 누구나 쉽게 만들 수 있는 음식 개발에 힘써왔다. 이와 함께 여주정식, 여주오리전골용 여주잡을 만들어 상품화 가능성을 열어줬다.

화순군농업기술센터는 향토음식 전문가 육성을 위해 화순향토음식학교를 개설하는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화순=배영재 기자 byj@kwangju.co.kr



담양군 지역특화 사업으로 인문학교육특구에 이어 전통정원특구가 추가로 지정됐다. 사진은 광주문화재단이 소재원 등 가사문화관에서 진행되는 풍류남도나들이(왼쪽)와 송강 정철의 '성산별곡' 탄생지 식영정.



담양군 지역특화 사업으로 인문학교육특구에 이어 전통정원특구가 추가로 지정됐다. 사진은 광주문화재단이 소재원 등 가사문화관에서 진행되는 풍류남도나들이(왼쪽)와 송강 정철의 '성산별곡' 탄생지 식영정.

담양군, 인문학교육 이어 전통정원특구 지정

2024년까지 944억 투입 8개 사업 추진
정원산업 발전·관광소득 증대 등 기대

소쇄원·식영정·송강정·면양정 등 인문학의 모태 누정과 원림을 품은 담양군이 인문학교육특구에 이어 전통정원특구로 추가 지정됐다.

11일 담양군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는 최근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를 열어 담양군의 기존 인문학교육특구에서 인문학교육특구와 전통정원특구로의 변경 계획을 승인했다.

지역특화발전특구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특성에 맞는 특화사업 계획을 독자적으로 수립하면 중앙정부가 선택적으로 규제특례를 적용해 특화사업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제도로, 2004년 9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담양은 면양정 송순, 송강 정철로 대표되는 시가

문학의 산실이다. 성산별곡의 탄생지 식영정, 시조·가사의 산실 면양정, 우리나라 으뜸 원림 소쇄원과 명옥헌 등 풍부한 문화유산이 곳곳에 산재해 있다.

담양군은 인문학교육에 전통정원 특화사업이 추가돼 인문학에 생태와 자연을 의미하는 전통정원을 융합시켜 역사와 문화예술, 생태환경과 인문학 교육의 조화를 통해 담양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지역경제발전의 신 성장 동력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기존 특구를 1개에서 2개로 변경·운영함에 따라 인문학과 전통정원의 시너지를 통해 정원 산업 발전과 관광소득을 기대할 수 있다.

이를 위해 담양군은 총 사업비 944억원을 투입해 2개 특화사업, 8개 세부사업을 진행하기로 했다.

인문학교육 특화사업에 사업비 606억원을 투입해 ▲인문학 콘텐츠 개발 ▲인본중심 인문학 계승

발전 ▲인문학 융복합 활성화 ▲인문학 인프라 구축사업을 추진한다.

전통정원 관광자원화 특화사업에는 338억원을 들여 ▲전통정원 문화공간 확충 ▲전통정원 운영 활성화 ▲정원 전문인력 양성 ▲정원산업 육성과 상품화 사업을 시행한다.

담양군은 이번 특구 지정으로 오는 2024년까지 생산유발 1373억원, 고용유발 1027명 등 소득과 일자리 창출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최형식 담양군수는 "이번 인문학교육·정원 특구 지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브랜드 가치 향상, 관광수입 등으로 인한 일자리 창출 효과 등 미래가치가 매우 클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 지정과 함께 생태도시의 강점을 활용한 담양식 그린뉴딜정책도 차질 없이 추진해 담양의 경쟁력을 높여겠다"고 말했다.

/담양=노영찬 기자 nyc@kwangju.co.kr

복합기능 미생물 연간 10t 생산 함평군, 농가에 무료 공급기로

함평군이 복합기능 미생물 10t을 생산, 농가에 무료로 공급한다.

11일 함평군에 따르면 복합기능 미생물(바실러스 GH1-13)은 감자, 고구마, 고추 등 다양한 작물에 적용 가능한 생육 증진 미생물로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했다.

농촌진흥청 자체 연구 결과, 종자 침지 또는 엽면 시비만으로 작물 생산성과 상품성 향상 등에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함평군은 올해 총사업비 2000만 원을 투입해 농업기술센터 미생물 배양실에서 연간 10t 가량의 복합기능 미생물을 생산, 지역농가에 무료로 공급한다.

신청을 희망하는 농가는 공급희망일 일주일 전까지 함평군농업기술센터 미생물실로 방문하거나 전화 신청하면 된다.

/함평=황윤학 기자 hwang@kwangju.co.kr

www.dsuoh.co.kr

코로나19

함께하면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응원합니다! 힘내세요!

정성과 따뜻한 마음으로 진료하고,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www.dsuoh.co.kr

통증·재활 교통사고

동신대학교한방병원

진료네트워크 : 광주·목포·나주·서울병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수술의 예방적 항생제 사용평가」

최우수1등급 획득

동이병원

광주광역시 남구 대남대로 238 ☎ 062.650.2500

문영래 정형외과 병원
YM Orthopaedic Hospital

어깨, 팔꿈치, 무릎, 통증치료

☎ 대표전화 062)606-8275

서구 운천로148 2, 3, 5층 (상무중학교 옆)

보건복지부 지정 안과전문병원

밝은안과21병원

노안 백내장 스마일 라식

광주 신세계백화점 사거리 현변방향 062)354-9000

http://www.smstardental.com

광주전남 대표 치과병원·기아타이거즈 공식치과

상무스타치과병원

대표원장 김은규 외 원장 일동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중앙로 58 (치평동 1236-3)타임스퀘어빌딩 7층
T. 062-367-8889 F. 062-367-8822

www.saewoori.com since 2002

광주 새우리병원

2018년 1월 현재 2011, 2015, 2019년 3회 연속 지정!

보건복지부 지정 광추 유일
척추전문 병원

지정기간 : 2018.01.01 ~ 2020.12.31

척추전문병원
www.saewoori.com

광주 화정동 농성역 4번출구 대표전화 062)603-8000